

(사)한국포장협회
코리아팩 2006 개최
 세계 30개국 5백12개사 참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 한국포장기계 협회, 경연전람회, 월간 포장이 공동주최하는 코리아팩 2006이 지난 달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최신 포장기계, 포장재가 선보이면서 최신 패키징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코리아팩은 올 해도 빠른 변화를 보이는 국내의 포장산업의 동향을 살펴 본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번 코리아팩 2006은 제약·화장품 산업전시회(COPHEX)와 동시에 개최, 제약 및 화장품의 원료부터 생산, 가공기계, 포장기계, 물류, 용기, 실험연구 기자재 등이 전시됨으로서 주요 바이어층인 제약, 화장품 산업 종사자들에게 포장산업정보 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생산설비 및 재료 등 다양한 전시품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전시회인 'SEOUL FOOD'가 동 기간 및 장소에서 동시 개최돼 그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특히 COPHEX 2006 전시회에 '첨단 연구개발 실험기자재 특별관'이 Show in Show 형식으로 선보임으로써 제약, 화장품, 식품 산업에 필요한 실험 연구 개발관련 최신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이번 코리아팩은 세계 30개국 5백12개사가 참



▲ (사)한국포장협회코리아팩 2006 개최

가하고 행사기간 중 약 2만5천 바이어가 등록하는 등 개최사상 최고의 레코드를 기록, 전체적으로 식품, 제약, 화장품 산업종사자들의 윈스톱쇼핑 효과를 가져왔다.

크로네스, KHS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SKC, 울촌화학, 동진기업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장업체들이 참여했으며 교토코리아, 리팩, 홍아기연, 세종파마텍, 카운텍, 제팩 등 실력을 갖춘 국내 포장기계업체가 출품했다.

SKC(주)에서는 최근 개발한 PET 필름과 나일론 필름의 장점을 결합한 Flexible Film을 개발해 선보였으며, 울촌화학(주)의 경우 OPP(oriented polypropylene)와 CPP(cast polypropylene) 점착 필름, 방향 리필백, 전분용기를 적용한 컵라면 등을 선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선정한 2006년 10대 우수포장관을 비롯해 일본포장기술협회(JPI)에서 선정하는 JAPAN PACKAGING CONTEST 2005에 선정된 제품들이 전시됐으며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와 코리아팩 전시사무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우수포장디자인특별관에 2005 PACK STAR 수상작이 전시됐다.

또한 한국포장학회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SKC, (주)지엠피의 기술세미나가 열리는 등 포장산업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리아팩 전시사무국 (주)경연전람 관계자는 “코리아팩 2006에 출품한 참가업체를 비롯해, 내방한 참관객, 후원기관 및 관련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팩 2007은 내년 4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도레이새한(주)
친환경 소재사업 진출
 PLA 생분해 플라스틱 전용설비 구축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Poly Lactic Acid) 전용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도레이새한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 “1백억 원을 투자, 내년 1월부터 연 5천톤 규모의 PLA 생산을 목표로 구미 3공장에 생산공정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발효 · 중합 반응시켜 만든 플라스틱으로 폐기하면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도레이 새한은 PLA 부문에서 2008년 100억, 2009년 1백50 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레이새한은 이 제품을 내년부터 ‘에코디어’란 상품명으로 판매하며 △ 식품 포장용기 △ 테이크아웃 용기 △ 쓰레기 봉투 및 핸드폰 △ 노트북 컴퓨터 · 전자제품 · 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 내외장재 등으로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레이새한 김성대 구미사업장은 “한국의 전체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백만톤이며 이중 1%만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해도 약 1천5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년 70%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지엠피
Thermalami 시스템 대안 제시
 규리애팩 제품 성황리에 마쳐

세계 최고의 라미네이팅 기술을 보유한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지난 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Korea Pack 2006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에 참가, 다양한 라미네이팅 솔루션을 선보이며 라미네이팅 업계의 선두 주자로써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Pioneer Series를 중심으로 한 Thermalami System은 포장, 인쇄업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자들로 부터 극찬을 받았다.

(주)지엠피의 국내영업 담당자에 의하면, Korea Pack 2006을 통해 GMP의 Thermalami System이 급속히 확산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Pioneer-8000 Dual은 엠보와 일반 라미네이팅이 Roller 교체 없이 이루어 지는 신개념과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Heating Roll 장착으로 신기술과 신개념을 접목해, 많은 구매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이번 전시회 기간 약 30여 업체로부터 Pioneer Series 구매 상담과 계약을 확실시 하고 있다.

BOPP Film을 Base로 기존 Polynex Film의 스크래치를 개선한 Polynex Antiscuff Matt, Nalon Film을 Base로 한 Nylonex Antiscuff Matt와 PET Film을 Base로 한 Perfex



▲ (주)지엠피 세미나 개최



Antiscuff Matt 등 특허 제품을 선보여 포장 및 인쇄 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지엠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초고속 INNOVATOR-120로 120M Speed의 라미네이팅을 시험가동 중이며, 이번 달 11일까지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하는 IPEX 2006(International Printing Exhibition) 전시회에 210m²(Hall No. 3 Booth No. C42)의 규모로 Pioneer-5000BC, 7000BC, 8000BC, 11000BC 및 Pioneer-8000 Dual 등의 신제품을 전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지엠피
유상증자로 '경상흑자' 추진
연간 13억원 이자비용 절감 효과 기대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는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금융비용이 줄면서 올해 5년만에 경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엠피는 1천4백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엠피는 각종 인쇄물이나 포장 용지 등의 대상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붙이는 라미네이팅용 기계와 필름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전체매출의 85%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지엠피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0년 자금을 대여해 필름공장을 증설한 이후 막대한 금융비용과 감가상각의 발생으로 4년 연속 경상손실을 기록했다. 2001년 공장 준공 직

후 9.11 테러가 터지면서 수출 시장이 축소됐고 중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을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 증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크게 줄여, 경상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엠피 관계자는 "80억원 가량되는 유상증자 대금은 대부분 차입금 상환에 쓰여질 예정이므로 증자 후 재무구조가 뚜렷하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경상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엠피는 지난 해에도 2백억원 가량의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비용을 낮췄으며 이로 인해 연간 13억원 가량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결산법인인 지엠피는 지난 해 출시한 신제품 파이오니어 시리즈의 판매증가 및 제품 다양화와 이자비용 감소로 지난 1분기(2005년 10월~12월)에 매출액 1백55억4천3백만원, 영업이익 3억3천7백만원, 순이익 2억6천5백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액 6백80억원, 영업이익 60억원, 경상이익 27억원 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촌화학(주)
생분해성 전분 용기 특허 취득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울촌화학(주)(대표이사 신동윤)은 '생분해성 전분 용기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성전분 용기'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울촌화학(주)은 “특허는 옥수수, 감자, 밀 등의 천연전분을 이용해 생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성 전분용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살균성, 탈취성, 보존성, 이형성이 향상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 용기는 기존의 합성수지, 플라스틱, 은박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용 용기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사용 후 토양에 매립할 경우 합성수지나 종이에 비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의 가공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울촌화학(주)은 이번 특허품의 사용용도와 관련 “컵라면 용기, 트레이 등 식품용 용기뿐 아니라 생활용품 및 전자제품 포장용 완충제 기타 합

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제품 포장완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산전자기기
DSM600-ST/ST4 출품
 바이어 등 참관객 호평 이어져

Bag Making M/C, 삼면실링기 전문제조업체 두산전자기기(대표 두장환)가 코리아팩 2006에 참가, DSM600-SPZ 및 DSM350-CSG 등을 선보여 참관객의 호평을 갖고 기계 주문 계약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금번 코리아팩 2006에 두산전자기기는 삼면 썰



▲ 코리아팩 2006에 참가한 두산전자기기전시 부스

링봉투 및 스탠딩 파우치를 가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DSM600 ST/ST4를 비롯해 DSM600-SPZ, DSM350-CSG을 선보였다.

DSM600-ST/ST4의 경우 3사이드 쉐어링 및 스탠드업 파우치백을 4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해외전시회 드루파(DRUPA)와 K-Pack에서도 호평을 받은 기계이다.

3서보 쉐타 쉐어링 봉투(M가제트)기계 DSM350-CSG는 3개의 서보모터(2개는 원단 이송용, 1개는 쉐어링바 상·하 작동용)와 윈도우 환경에 의한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쉐어링 온도 및 시간, 운전속도 증·감, 봉투길이 설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두산전자기기가 이번에 선보인 DSM600-ST/ST4 및 DSM350-CSG를 비롯한 기계의 경우 작업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 또는 재현할 수 있어 재작업 시 시간과 제품의 불량률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전자기기 관계자는 “전시기간 내 참관객들로부터 기계 수주가 이뤄지는 등 호평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향후 코리아팩 주최측이 노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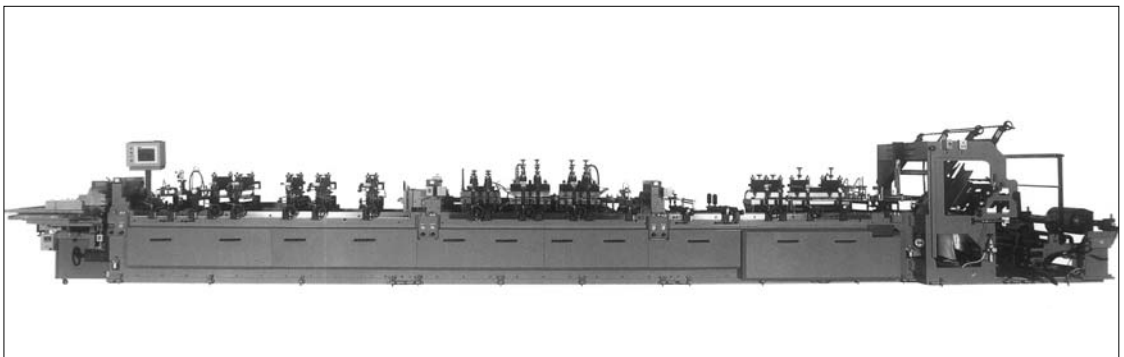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다양한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KC(주)
플렉시블 필름 기술 세미나 개최
차세대 포장산업 선도 기대

SKC(주)(대표이사 박장석)는 지난 달 22일 코리아팩 전시기관 중 플렉시블 필름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SKC는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BOPET의 우수한 가공적성과 BOPA의 우수한 용도적성을 하나의 필름소재로 실현할 수 있는 폴리에테 포장용 신소재 필름인 플렉시블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남일 첨단기술연구소 필름개발실 책임연구원이 차세대 포장을 선도할 플렉시블 필름의 특성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두산전자기기 DSM350-CSG

김남일 책임연구원은 “SK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렉시블필름은 다양한 폴리에스터 중합 및 개질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개발과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 낸 쾌거”라며 “한국이 세계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시기를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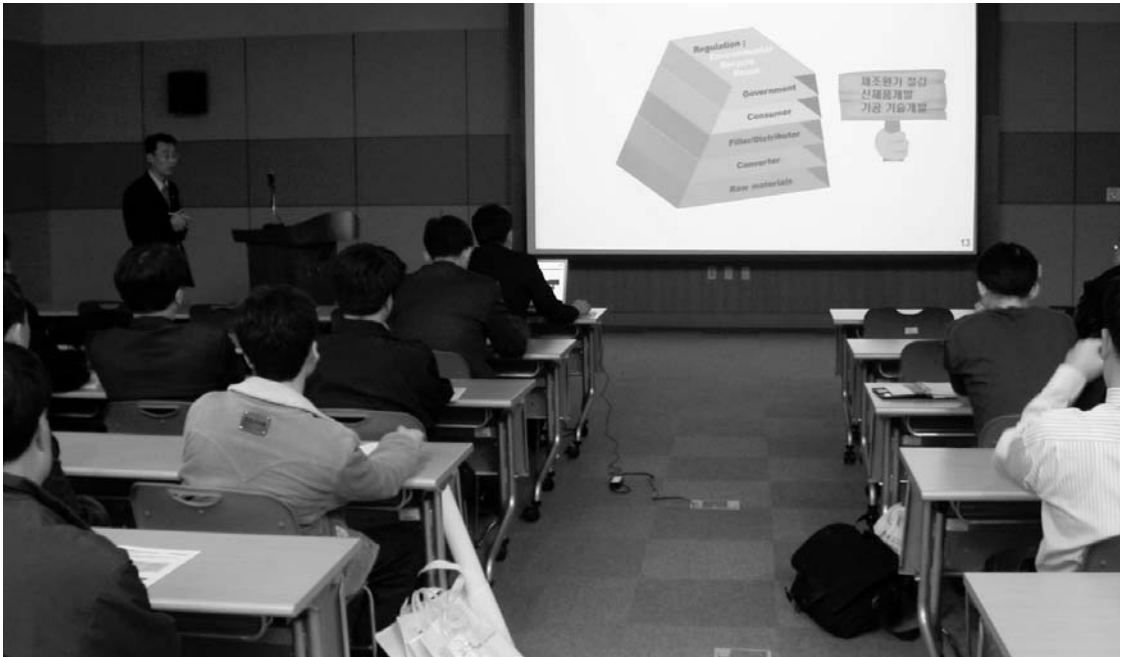
SKC의 플렉시블 필름은 나일론 필름과 PET 필름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으며 유연성, 질감성, 내충격성, 내핀홀성은 물론 내마모성, 인쇄적성, 증착성, 레토르트성 등에서 높은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사용 필름의 두께보다 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레토르트 파우치에 적용할 때 기존에 4겹 포장을 3겹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
재활용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제정 뒷받침 및 법, 제도 보완 시급

현재 ‘유아산업’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과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지난 달 23일 열린 ‘2006 환경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경 전문가들은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의 활성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타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의 개편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 SKC(주) 플렉시블 필름 기술 세미나 개최